

#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 내실화

전주시, 성과분석 용역 추진 사전설명회 개최  
대회별 현장 모니터링 설문조사로 평가자료 확보



전주시는 3일 국제·전국대회 주관단체 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 성과분석' 용역 추진에 따른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주시가 각종 국제·전국체육대회의 성과를 분석해 향후 체육대회 유치 심의시 반영키로 했다. 시는 3일 국제·전국대회 주관단체 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 성과분석' 용역 추진에 따른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관련 단체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진행될 대회현장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설명회에서 용역의 사업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 지표 개발 △대회 현장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성과분석결과 피드백을 통한 대회의 내실화 △보조금 지원 기준 및 교부신청 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평가담당으로 위촉된 문계성 교수(원광대학교 스포츠과학부)는 이날

"무분별한 대회 유치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우수대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회별 객관적 자료와 명실한 성과분석이 필수"라며, "체육단체들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공정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섭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이번 성과분석 작업을 통해 전주시에서 개최되는 국제 및 전국대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수대회의 지원 및 유치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회별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현장평가와 설문조사가 필요한 만큼, 주관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 성과분석 용역은 올해 전주에서 개최되는 15개 국제·전국대회에 대한 현장 및 설문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성과분석 결과는 내년도 체육대회 유치 심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그 날의 기록, 울림으로 오다'

완산도서관, 3.1운동·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

전주시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을 전시한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이날 말까지 완산도서관 로비에서 '그 날의 기록, 잊혀지지 않는 울림'을 주제로 독립운동 관련 신문 기사와 관련 도서를 전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독립정신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관람객들이 역사적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1921년부터 1925년에 발행된 동아일보 기사 중 독립운동 관련 기사 7점을 발췌해 해설과 함께 선보인다. 주요 전시물은 △3.1운동 2주년을 맞아 2년간 수감 중인 독립선언 48인의 근황을 소개하는 기사(1921.3.1 보도) △의열단원 김삼욱 의사의 종

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을 다룬 기사(1923.1.15 보도) △한식을 맞아 기자인 김삼욱 가족과 함께 김삼욱 묘소를 찾은 특집 기사(1924.4.8 보도) △임시정부 대통령 박은식이 각지 독립단에 대동단결을 역설하는 교지를 보낸 내용의 기사(1925.5.14 보도) 등이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경성을 쏘다: 김삼욱 이야기(이성아/북멘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리니(이화/김영사) 등 깊이를 더해줄 독립운동 관련 도서 9권을 함께 전시된다. 박용자 전주시 완산도서관장은 "이번 특별 전시가 잊혀지지 않는 울림이 되어 기념일뿐만 아니라 매순간 독립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국제항공우편으로 필로폰 대량 밀반입... 태국 마약조직 검거

'2만명 동시 투약 가능'... 비타민 제품으로 위장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태국인 마약 유통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들이 밀반입하던 필로폰은 2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총책 A모(36)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6일 라오스에서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시가 22억원 상당의 필로폰 675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2월 정음의 한 속박업소에서 만난 B모(29)씨에게 "라오스에서 오는 물건을 받아 오면 대가로 판매액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지인인 C모(27)씨에게 일당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마트에 배달된 물건 수령을 부탁했다. 남편인 C씨 지시를 받은 아내 D모(27)씨 등 태국 여성 3명은 지난달 22일 정음의 한 마트로 배송된 택배를 수령해 운반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C씨의 아내를 추궁해 A씨와 B씨 등이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D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전주지검에서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항으로 발송된 택배를 미리 압수했다. 이후 광주세관과 공조해 우체부에게 위장 택배를 예정된 배송지로 배달하게 한 뒤, 주변 잠복을 통해 마약 조직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경북의 산업단지 등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A씨와 B씨는 다른 태국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C씨의 검거로 범행이 발각되자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지우고 계정을 탈퇴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직후 실시한 소변검사



국제 항공우편을 이용해 필로폰 밀반입한 태국인 검거 브리핑이 3일 전북도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경찰관계자들이 필로폰 모형을 정리하고 있다.

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돼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추가됐다. 더불어, 경찰은 이들이 검거되기 전 2건의 마약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구매자들을 상대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 밀수를 지

시한 태국인 총책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르고 인터폴을 통해 국제공조수사로 검거할 예정이다"며 "경찰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차단과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 유관 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 탄소·복합재 분야 인력양성과정 운영

전주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 재직자 대상... 중기 재직시 무료

전주시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최종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탄소소재 산업단지를 뒷받침할 탄소·복합재 분야의 인력양성에 집중키로 했다. 교육신청은 현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 홈페이지(hrd-kctech.re.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연계과정은 하반기에 별도 공고를 통해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신청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재직자이며,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무료이다. 대기업 재직자는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시와 기술원은 지난 2012년부터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전국 탄소 관련기업 561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첨단 교육훈련장비 44종을 구축하고 총 136개 과정을 운영해 4,46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취업연계과정 수료자 65명 중 53명을 취업시켜 약 82%의 취업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방운혁 기술원장은 "올해도 탄소분야 신규 협약기업을 50여개 발굴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탄소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총 27개 과정이 포함된 2019년도 교육과정을 승인받았으며, 올해 852명의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탄소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신청은 현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 홈페이지(hrd-kctech.re.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연계과정은 하반기에 별도 공고를 통해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신청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재직자이며,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무료이다. 대기업 재직자는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시와 기술원은 지난 2012년부터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전국 탄소 관련기업 561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첨단 교육훈련장비 44종을 구축하고 총 136개 과정을 운영해 4,46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취업연계과정 수료자 65명 중 53명을 취업시켜 약 82%의 취업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방운혁 기술원장은 "올해도 탄소분야 신규 협약기업을 50여개 발굴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탄소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군산서 빈집털이 50대 검거

빈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 30분경 군산 시내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5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베란다 창문을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 전주시, 봄철 '생명존중' 인식 확산 나서

보건소, 자살 고위험군 선제적 집중관리 추진

전주시가 봄철 급증하는 우울증과 불면증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지난 3월부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봄철 자살률 증가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일조량 증가와 꽃가루, 미세먼지 등 계절적 요인과 졸음·구직시기에 따른 불면증,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재발 등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보건소는 주민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목거노인생활관리사와 의료급여관리사, 방문간호사 등을 활용해 우울감을 보이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는 또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 4명으로 자살예방 심리지원단을 신설, 자살시도자에 대

한 치료 및 심리 지원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생명존중체제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올해부터 전주 지역자원센터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울 및 불안, 자살사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2019년 긴급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직·휴폐업 등 기존 위기사유 외 자살 고위험군(자살 시도자, 유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1월~6월) 위기사유로 인정되면 생계유지비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자살 위험이 높은 장소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9' 홍보 현수막을 거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위험이 염려되는 주변인에게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과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전주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은 물론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 통합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국민 없이 1399 또는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273-6996)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 김양원 전주부시장, 중앙상가 현장점검

전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사람들이 불리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지난 2일 전통시장인 중앙상가 일원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양원 부시장과 건축·전기·소방·가스분야 민간합동기획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위험이 염려되는 주변인에게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과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전주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은 물론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 통합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국민 없이 1399 또는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273-6996)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얼마 남지 않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민관 전문가의 실효성 있는 점검과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국가안전대진단의 남은 기간 동안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추가 제작한 자율점검표도 배포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송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의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주민센터(동장 임익철)는 지난 1일 송천2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2019년도 찾아가는 행복동네만들기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과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긴급생계비 1가구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했으며 그 외 복지사각지대의 지원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채병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주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살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익철 송천2동장은 "송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취약계층 발굴, 연계하여 지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